

인생과 자전거

내가 수집하는 것 중에 모형 자전거가 있다. 이미 50개 정도는 되는 것 같다. 인생은 자전거와 같다. 뒷바퀴를 돌리는 것은 당신의 발이지만 앞 바퀴를 돌려 방향을 잡는 것은 당신의 손이며 눈이고 의지이며 정신이다. 당신의 발이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움직여주는 주지만 정작 당신의 손은 호주머니 속에 깊이 박혀 있는지도 모른다. 정작 당신의 눈은 당신 앞에 놓인 길을 바라 보지 않고 옆에서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오토바이들과 스포츠카만 부러운 마음으로 바라볼 지도 모른다. 때문에 비록 열심히 페달을 밟고는 있지만 당신이 탄 자전거는 제 자리를 맴돌 뿐이다.

-삶이 그대를 속이면 분노하라- 중에서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내 서재 책상 위 천장에 있는 자전거들



서재 책꽂이 위 천장



서재 책꽂이 위 천장:
먼지가 앉아도 눈에 잘 띄이지 않아서 ㅎㅎ



벽에 붙여놓은 것들



큰딸의 조언을 받아 배치했었음 ㅎ



계단벽이어서 사진을 제대로 찍기가
좀 어려워... 잘 안나왔지만



자전거가 그려있기에 산 그림



아직 정리 못한 것들이 이외에도 꽤 되는데...

세이노 선생님께서
수집하신 모형자전거들

각종 사진 자료실 63번
인생과 자전거편 참조

온야스(onyas) 모임후기 _ 2009. 11. 15

안녕하세요. 김 용희입니다.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지요.

저는 지난 2009년 9월 말 경, 존경하는 선생님께서 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카페 대문 동영상 제작을 후원해주신 회원님들과 식사자리를 만들고자 하시는 데, 그와 관련된 것들을 알아봐 달라고 하신 내용이었으며, 그에 따라 2009년 11월 15일 일요일, 서울의 모 호텔 최고층 스카이라운지에서 세이노 선생님과 14분의 회원님들께서 식사자리를 갖게 됩니다.

모임명은 온야스(onyas, sayno를 거꾸로 쓴 것임).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가치를 따질 수 없는, 너무나 빠르게 지나갔던, 그 소중했던 그 시간들을 카페 회원님들과 함께 하고자 아래와 같은 사진들을 올려봅니다.

사진을 찍을 당시, 마치 직접 모임에 참여하는 듯한 느낌을 얻고자 염두에 두고 촬영을 하였으나 워낙 사진수가 모자라 그렇게 느껴지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회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세이노 선생님의 글을 진지하고 깊게 가슴에 새기며 삶에 임한다면 세이노 선생님과 늘 함께 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운영자가 예상하기엔 훗날, 또다른 회원님들과의 만남의 자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호텔로 들어가 보시죠!



1. 호텔 정문

호텔 정문 사진입니다. 좌측에 보이는 금색 자동회전문을 통해 호텔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 호텔 1층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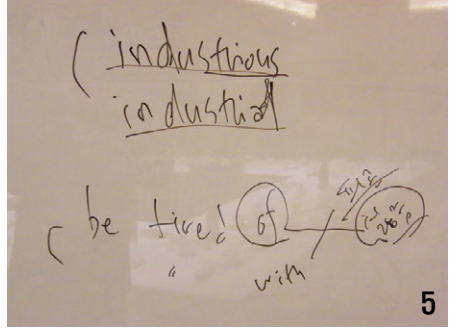
호텔 1층의 로비입니다. 사진 중앙의 초록식물의 뒤쪽에 공간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 카페 회원님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계십니다.



3. 세이노 님의 차량, 벤츠 sl 55 amg

아직도 운전기사 직원을 두시고, 여러 대의 차량을 운용하시지만 오늘, 온야스 모임에는 2인승 로드스터 차량을 직접 몰고 오셨네요.

5500cc의 배기량에 1억원이 넘는 고성능의 최고급 스포츠카이지만, 순간 제 눈에는 '선생님의 피와 땀과 눈물, 그리고 온 몸에 생긴 상처들이 한데 뭉쳐져 빚어진', '1인치의 소중함을 깨닫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피보다 진하게 삶을 살아 오신 선생님의 '결정체'로 보여 마음이 찢해집니다.



4. 스카이라운지에 세팅된 테이블

'다'자 형상의 테이블에서 14분의 회원님들과 운영자, 그리고 세이노 선생님이 둘러 앉아 서로를 바라봅니다. 한겨울의 매서운 바람같은 긴장감이 온 몸을 휘감지만, 세이노님의 말씀이 시작되면서 그런 것들은 이내 사라지고, 선생님의 지혜로운 말씀들에 몰입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세이노 선생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말씀의 내용들은 '베스트글 모음집'의 후기담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5. 선생님의 필체

방 안에 세워진 화이트보드에 빠르게 글자를 적어가시면서, 강사가 가져야 할 테크닉에 관해 말씀해 주시네요.

"'industrious(근면한)'하구 'industrial(산업의)'의 차이를 어떻게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하느냐는거지. 이런거 외우는 걸 아이들이 힘들어 하잖아.

자!industrial(산업의) 끝에 보면 '자 기둥이 보이지?이게 뭐겠어?공장의 굴뚝이잖아.굴뚝,그렇지?',

"'be tired of'는 싫증나다고, 'be tired with'는 피곤하단데...,

어떻게 외우는가하면 'of'와 싫증에는 둘 다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그걸 아이들에게 기억하게 하는거지. 이런 식으로 아이들 입장에서 가르킬 줄 알아야 강사의 몸값을 높일 수 있는거야."

6. 모임 종료 후,스카이라운지에서 내려다본 야경

아름답습니다.아름다운 야경입니다.이런 풍경을 매일 보면서 살고 싶어집니다.

온아스 모임이 끝난 지금, 창 밖을 내려다보니 이런저런 생각이 마구 떠오릅니다.

7. 단체사진 촬영

자리를 함께 한 회원님들과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간 줄 모를 정도였으나, 단체사진을 찍으려니 조금 정신이 돌아옵니다.

8. 세이노 선생님의 팔목

사전에 허락을 받은 '선생님의 팔목' 부분을 촬영합니다.

'잘 나오지 않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게 선생님의 증표구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보면 상처자국이 아주 선명하고 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나에게는 왼쪽 팔목에 길이 6cm , 4cm 짜리 칼 자국 두개가 나란히 있다. 면도칼로 그었더니 피가 줄줄 흘러 다시 짝 그었기에 칼 자국이 2개가 되었다.’, ‘나는 술집 멤버도 되지 못했고 내가 할 것이 없다는 사실에 절망해 바보같이 또다시 죽을 생각만 했다. 결국 나는 팔목을 자해하고 피를 많이 흘렸지만 여차여차 발견돼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그것이 나의 마지막 자살 시도였다. 응급실 백색 천장을 바라보며 “이 망할 놈의 세상, 살라는 팔자인가 보다”는 생각이 나의 머리를 채웠다. 한달 후 나는 중학교 1학년을 가르치는 과외교사를 하게 된다.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었고 또다른 시작이었다.’ 라는 글귀가 떠오릅니다.

‘그렇게나 절망적이었던 내가 부자로 살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다. 흔히 이야기하듯 사람 팔자 시간 문제이다. 그러므로 미래를 미리 계산하여 절망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그저 이 순간부터 당신의 미래 언젠가에 무슨 일인가가 새로 일어날 수 있도록 책을 읽고 지식을 축적하라.’ 라는 글귀도 떠오릅니다. 주옥같은 선생님의 말씀들이 머리속에 하나 하나 떠오릅니다. 내 자신에게 묻습니다.

‘넌 어떻게 살아왔니?, 넌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넌 앞으로 어떻게 살거니?’

열심(熱:뜨거울 열, 心:마음 심)히 살아야겠습니다. 죽는 그 순간, 후회하는 마음없이 행복하게 눈감을 수 있도록, 항상 세상과 나 스스로에게 당당할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갈길이 멀기에 분명 바쁘고, 피곤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습니다. 정말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세이노의 가르침' 카페회원님들과 함께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회원님들. 부디 각자의 위치에서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차가운 세상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 나갑시다! 매순간 흔들리는 나 자신을 이겨냅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모임에 힘써주신 한번의 삶님, 엄동준님, doordie님, 슈퍼맨동님, cross road님, 미르77님, 지너니님, 행동가님, 스크래치맨님, 애니님, 다찌코리아님, 코들러님, 비수님, Murphy님, 대구사람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세이노 선생님께 깊고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2009년 11월 22일, 김 용희 올림